

가족 확진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 경험담 들어보니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안...곧 적응 돼 괜찮아져 '사실 아닌 내용'으로 확진자·가족 비난 말길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확진자 가족이 감염됐다’는 뉴스를 많이 봐서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에 있는 가족도 걱정되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에서 격리생활을 하다 건강하게 퇴소한 이모씨(20·여) 이야기다.

이씨는 지난 3월 19일 아버지의 확진(수원시 20번 확진자)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이씨 아버지는 격리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씨와 엄마, 동생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를 채취했다. 이튿날 아침, 가족들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음성’이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화장

실 2개인 이씨 집에서는 2명만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다.

엄마와 동생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이씨는 보건소 권유에 따라 수원유스호스텔에 입소했다.

이씨는 “갑작스러운 자가격리 생활에 두려움이 컸다.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조금씩 극복했다”며 “처음에는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답답하기도 했지만 2~3일이 지나자 적응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임시생활시설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8시에 아침 도시락을 먹고, 10시에 체온을 재고, 방을 소독했다. 정오에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에 한 번 더 체온을 재고, 방을 소독했다. 오후 6시에 저녁을 먹었다. 방문 앞에는 매일같이 간식이 놓여있었다.

수원유스호스텔 근무자는 틈틈이 방송으로 일과를 안내했다. 영통구보건소 직원은 매일 전화를 해서 ‘이씨의 체온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한 건 없느냐고 물어보며 이씨를 살뜰히 챙겼다.

이씨는 “3일 정도 지나자 걱정과 불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자가격리 생활에 적응이 됐다”며 “책도 많이 읽고, 대학 온라인 강의도 듣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잘못 알려진 가족 동선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도 떠올렸다.

그는 “아빠의 동선이 공개된 후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자녀 중 1명이 감염됐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인터넷에 확산돼 너무 무서웠다”며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로 가족을 욕하고, 비난해 가족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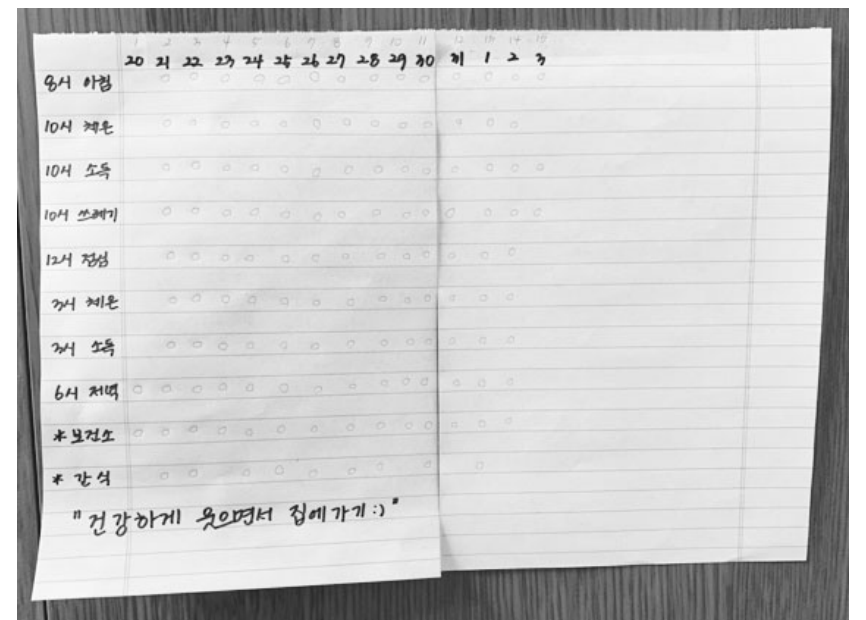
이씨는 14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4월 3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했다. 자가격리 기간에 증상은 없었고, 퇴소 전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달 5일 어머니와 함께 간식 꾸러미를 들고, 수원유스호스텔을 다시 찾았다. 정성껏 포장한 간식 꾸러미에는 컵라면, 과자, 사탕, 음료수 등이 들어 있었다. 수원유스호스텔 입소자와 근무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었다.

이씨는 “보건소에서 전화해주신 분들이 하나같이 정말 친절하셨다”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2월 18일부터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한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과 물·간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모씨의 자가격리 일과표.

식 등을 제공한다.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입소자는 격리 기간에 외부 출입, 면회를 할 수 없다. 진료 등으로 외출을 꼭 해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보건소 조치

에 따라야 한다. 2월 19일 수원시 1·2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오유나 기자



드론으로 제주 부속섬에 마스크 배달

공적 마스크 판매처 없는 가파도 등 3개 섬 배송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제주 ‘섬 속의 섬’에 드론을 이용한 마스크 배송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수소드론을 활용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이 없는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공적마스크 배송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스크를 실은 드론은 서귀포시 대정읍 한태평양 평화소공원을 출발해 가파도 600매, 마라도와 비양도에 각각 300매를 전달했다.

이번 드론 배송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의 협업으로 이뤄졌으며, 도는 그동안 제주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금까지 드론 배달서비스는 비가시권 비행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으나, 국토교통부의 긴급 특별비행 승인으로 이날 서비스 시행이 가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적마스크를 배송 받은 가파도 이장과의 영상통화에서 “가파도가 약국과 우체국이 없다보니 공적마스크 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이제는 드론을 이용하여 배달할 수 있어 안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근 가파도 이장은 “가파도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려면 하루 이상이 소요됐지만, 도의 노력으로 공적마스크를 가파도 주민 모두에게 배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드론으로 배송한 물량을 제외하고 앞으로 부속섬 주민들에게 배송되는 마스크는 총 1만5000매로, 세계 섬 주민 490여 명이 매주 2개씩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5월 드론법 전면 시행에 따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이슬 기자

충북 괴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자체방역기 추가...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기대

충북 괴산군은 지난 16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증발냉방장치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아케이드형 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억9000여 만원을 들여 전통시장 170m 구간에 52개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최대 10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악취제거

와 해충방지 효과도 있어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증발냉방장치 설치를 한 불루텍주식회사는 1500만원 상당의 자동방역이 가능한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군은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충남 홍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은 임신부터 출산·이유기에 있

는 임산부에게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12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지원대상은 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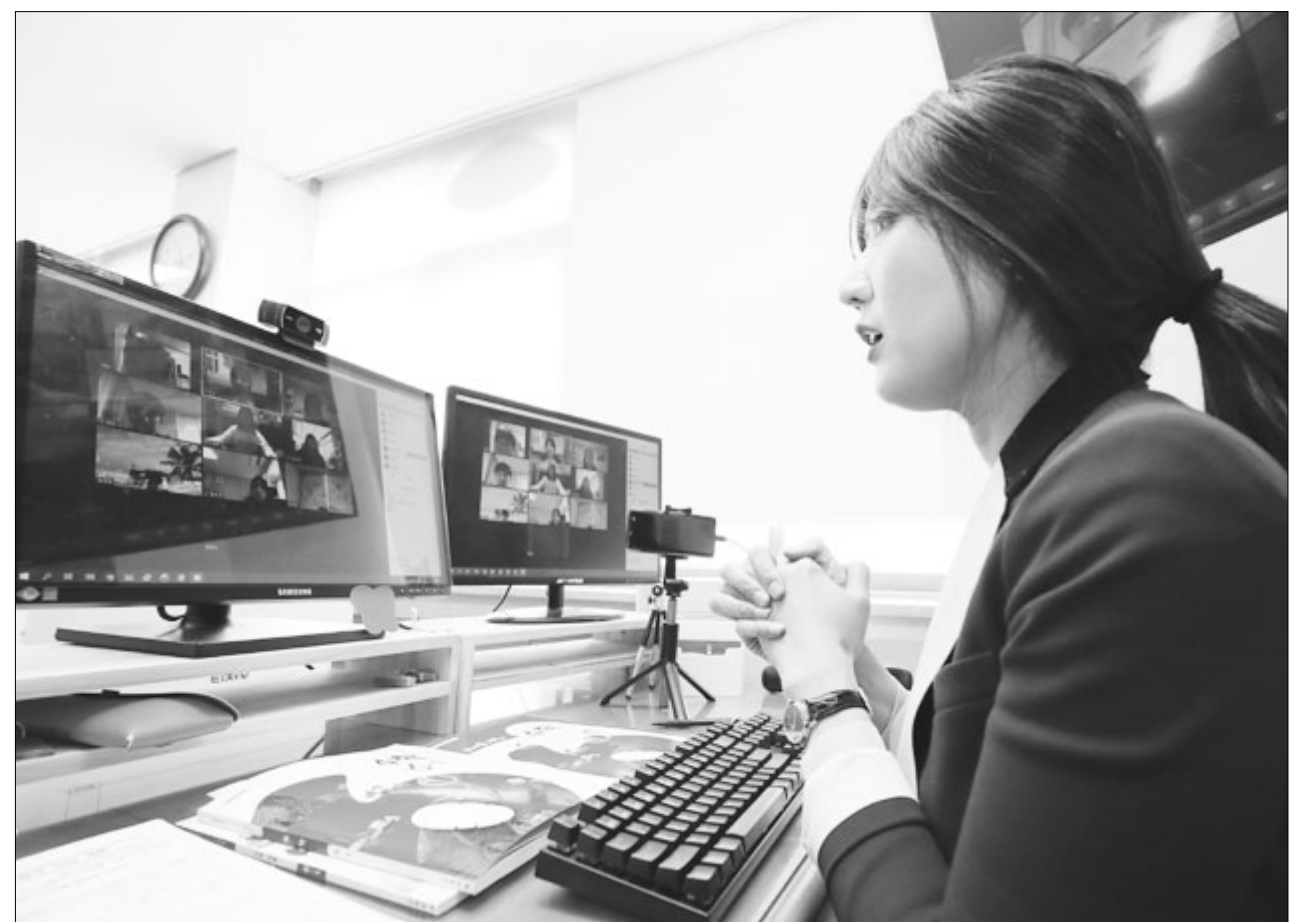
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산물꾸러미는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원에서 공급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 받은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주문할 수 있다.

주문은 월 최대 2회 이용 가능하며 회당 3만원부터 6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구매비용의 20%를 정부담으로 결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농민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우리지역 임산부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1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동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사가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총 26km 완료 계획

안전사고 예방·지하시설물 효율적 관리 목적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모습

충남 예산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하시설물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삼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에 대한 상수도 18km, 하수도 8km 등 총 26km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읍에 이어 삼교읍, 덕산면의 도시 기반 시설물에 대한 통합정보 구축돼 지하시설물 관리와 사고 예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부터 현장작업이 진행된다”며 “조시원이 맨홀 위에 적재된 물건이나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을 요청할 경우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이슬 기자

창원시, 내달부터

기업제로페이 시행

경남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에 대해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금고 은행인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회계절차상 애로점 등을 점검한 후 5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제로페이는 기존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기업 및 공공기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제로페이 결제 시에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가 없고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부서 회계담당자가 관리시스템(히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와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하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가 휴대폰 앱을 통해 결제하면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되고 5일 이내에 사후 정산처리를 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공공부문에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